올 일자리 30만~50만개 사라진다

성장률 -3~-4% 전망… 비정규직 이어 정규직도 감원 한파 올 듯

국내 경기침체로 올해 일자리가 30만~50만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예측하고 있는 일자리 감소폭인 20만개에 비해 최대 2배 이상에 이르는 규모다.

또 상용직 일자리 증가도 4~5월에 한자릿수에 머물거나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으며 구조조정 지연으로 내년에는 고용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6일 한국은행과 재정부, 국책·민간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경기전망이 갈수록 나빠지면서 고용사정도 더욱 추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변양규 연구위원은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3~-4%로 예상되며 이렇게 되면 일자리는 50만개 이상이 사라질 것"이라며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고용사정이 더 안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0%일 경우, 일자리는 18만~29만 개 줄어들고 정부 예측대로 성장률이 -2%라고 한다면 일자리는 42만 개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황수경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올해 상반기에 일자리가 40만 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고용감소는 경기하강 속도만큼 심각하지는 않은데, 올해보다 내년에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기업들은 근로시간을 축소하고 임금을 깎으며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버티고 있으나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내년 이후에 기업들이 무너지면서 고용사정이 더욱 나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올해 상반기 성장률을 -5~-4%라고 한다면 3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면서 "성장률이 1% 떨어질 때마다 고용은 6만명 정도 감소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에 이어 정규직들이 흔들리는 사태가 조만간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상용직 일자리는 아직까지 20만개 이상의 탄탄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빠르면 4~5월, 또는 6~7월에 한자릿수 증가율로 떨어지거나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 등이 현재 인력구조조정에 들어간 상태이지만 상용직도 구조조정에 진입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면서 "이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KT 메가패스 출시 10년을 맞이해 PC클리닉 기사가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을 방문, PC를 자세히 점검해주고 있다. 〈KT 제공〉

KT 메가패스 출시 10년… 고객들에 PC클리닉 서비스

KT는 초고속 인터넷 메가패스 출시 10년을 맞이해 장기 이용고객들에게 PC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한다.

KT는 메가패스를 9년 이상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5만원 상당의 PC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KT는 이를 위해 서비스 대상 고객 40만명에게 PC 클리닉 상품권을 동봉한 요금청구서와 전자우편을 발송했다.

이를 받은 고객이 KT고객센터(전화 100번)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문가가 방문한 후 최적의 환경에서 메가패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바이러스 체크 등 PC의 결함을 점검해 준다. 자세한 내용은 KT홈페이지(www.kt.com)이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되며 서비스 사용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3주택이상 양도세 감면 대상

광주·전남 6,096가구

정부가 15일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따라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 제도가 폐지되면서 올해 실질적인 세금 감면을 받는 3주택 이상 가구수가 광주·전남 6천96가구를 비롯, 전국적으로 16만 가구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행정안전부(옛 행정자치부)의 지난 2005년 '세대별 주택 보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택을 3채이상 보유한 가구수는 광주 2천615가구, 전남 3천481가구 등 총 16만5126가구에 이른다.

지금까지는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주택을 팔 경우 과세표준의 45%의 세율을 적용해왔지만 이번 세제 개편안에 따라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집을 팔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만1천731가구로 가장 많고 경기도(2만1천780가구), 부산(9천813가구), 경남(8천405가구), 경북(6천31가구), 인천(5천520가구) 등의 순이었다.

광주의 경우 1만7천309가구가 주택 2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수는 1천670가구 ▲주택 4채 406가구 ▲5채 145가구 등이었다. 6~10채 이상 보유 가구도 193가구에 달했다. 11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201가구나 됐다.

전남에서는 ▲3채 2천702가구 ▲4채 385가구 ▲5채 119가구 ▲6~10채 175가구 ▲11건 이상 100가구 등으로 파악됐다. 기존 2주택자의 경우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중과세율(50%) 대신 일반 세율(올해 6~35%, 내년 6~33%)을 적용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세제 개편안에 따라 내년 이후에 주택을 팔아도 계속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이 장기적으로는 시장 거래를 활성화시키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자칫 다주택자가 보유한 매물이 쏟아지면서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세대별 거주자 주택보유현황 (2005년 8월 12일 기준)

		전국	광주	전남
총 보유주택수		11,193,602	266,861	430,299
보유건수별 세대수 (주거용건물)	1건	8,819,690	218,862	356,408
	2건	722,054	17,309	30,112
	3건	86,664	1,670	2,702
	4건	25,253	406	385
	5건	12,701	145	119
	6~10건	25,685	193	175
	11건이상	14,823	201	100

〈자료: 행정안전부〉

환율 43.50원↓ … 1,440원대로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들의 달러화 매도와 무역수지의 흑자 전망에 급락했다.

16일 서울외환시장에서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지난주 말보다 43.50원 하락한 1,440.00원으로 마감했다. 지난달 16일(1,427.50원) 이후 한 달만의 최저 수준이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역외세력의 달러화 매도세 여파로 환율이 하락했다고 전했다. 필립스의 LG디스플레이 지분 매각분을 매수한 외국인들이 대거 달러화를 원화로 환전하면서 환율 급락을 가져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달 무역수지 월간 흑자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점도 원화 강세를 부추겼다.

주가는 지난주 단기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다. 코스피지수는 지난주 말보다 0.30포인트(0.02%) 내린 1,125.73으로 마감했고, 코스닥지수도 0.50포인트(0.12%) 하락한 388.77을 기록했다.

코스피지수는 지난주 말 미국 증시의 강세 소식에 강보합으로 출발한 뒤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에 반등을 시도, 1,142.58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외국인이 사흘 연속 순매도에 나선데다 기관까지 '팔자'로 돌아서 하락 반전했다. /장필수기자 bungy@

3월 무역흑자 40억달러 전망

3월 무역흑자가 사상 최대인 4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동근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은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가 하락으로 석유 수입 금액이 대폭 줄면서 이달 무역수지 흑자가 월별 기준 사상 최대인 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3월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 감소하지만 수입은 33%나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